

1920년대 소련 지역의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재 『붉은 아이: 새독본』 1~4권 연구

한하림*

국문초록

이 연구는 재외동포를 위한 초창기 한국어 교재인 계봉우의 『붉은 아이: 새독본』 1~4권(1924~1927년)의 사료적 가치에 주목하고 교재에 제시된 교육 내용과 본문 구성을 권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1권 1편은 한국어 자모 습득을 위한 입문 단계 교재로서 음운 환경을 고려한 발음 중심의 교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1권 2편부터 4권은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가 제시되었으며 내용도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소재에서 사회적이고 이념적인 내용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였다. 1920년대 소련의 소수 민족 모어 교육 장려 정책의 영향으로 발간된 이 교재는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되었으나, 음운 중심의 기초 문식성부터 한자를 병기한 고급 수준의 문식성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재외동포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읽기 교재의 원형적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계봉우,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교육, 계승어 교육, 독본류 교재, 한국어 교재

* 국립한밭대학교 국제학부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의 목적은 1920년대 소련 거주 고려인을 위해 발간된 계봉우의 『붉은 아이: 새독본』 1~4권(1924~1927년)¹⁾을 분석함으로써 태동기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교재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²⁾

오늘날 약 7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는 19세기 중반 러시아 연해주에서 시작되었다.³⁾ 1864년, 함경도 출신인 최운보(崔運寶)가 영구 이주를 목적으로 농민 13가구를 이끌고 러시아 포시예트(Posyet)로 건너간 것을 시작으로 러시아 일대에는 ‘지신허(地新墟), 사만리(四萬里)’와 같은 대규모 한인 집단 마을이 형성되었다. 계승어로서의 한국어교육(Korean Heritage Language Education)도 최초의 한인 집단 마을이 조성된 러시아 연해주 일대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지신허에는 한글 학교의 전신으로 볼 수 있는 기숙 학교인 서학서숙(西學西塾)이 운영되고 있었다.⁴⁾ 계봉우(桂奉瑀, 1880~1959)가 집필한 『붉은 아이: 새독본』 1~4권(1924~1927년)도 1920년대 당시 소련에 거주하던 한인 2·3세를 대상으로 모어인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편찬된 교재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어 교재 개발자로서의 면목에 주목하여 계봉우를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신 사학계와 문학계에서는 그에 대

1) 국립중앙도서관의 검색 결과에 따르면 『붉은 아이: 새독본』은 권별로 제목이 상이하다. 제1권 1편은 1924년에 『붉은 아이: 로력학교용 고려새독본』으로, 제1권 2편은 ‘고려’가 빠진 『붉은 아이: 로력학교용 새독본』이라는 이름으로 발간되었다. 제3권과 4권은 1926년과 1927년에 ‘로력학교용’이 빠진 『붉은 아이: 새독본』으로 출판되었다. 본 고에서는 제1권부터 4권까지를 포괄하여, 전 교재 시리즈를 지칭하기 위해 교재명을 『붉은 아이: 새독본』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2) 20세기 초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이 시작된 시기로 태동기로 볼 수 있다(김정숙 외, 2025).

3) 재외동포청(www.oka.go.kr)의 2023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재외동포는 약 708만 명이다.

4) 지신허(地新墟)는 러시아 최초의 한인 집단 마을로 1869년에는 한인 가구 수가 766가구에 이르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지신허」 참조).

한 조명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던 그는 『신한독립사(新韓獨立史)』(1912년), 『조선역사(朝鮮歷史)』(1912년)와 같은 역사서를 집필하였으며 사학계에서는 독립운동가로서의 생애와 저서를 고찰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조동걸, 1996; 윤병석, 2010; 반병률, 2011; 이영호, 2011; 이현주, 2011; 임학성, 2015; 박준형, 2021). 또한 계봉우는 『조선문법』(1947·1948년), 『조선문학사』(1950년), 『조선말의 되어진 법』(1955년) 등을 저술한 어문학자이기도 하다. 이에 어학 관련 연구(조원형, 2013)와 문학 활동을 다룬 연구(김필영, 2011; 임경화, 2013)가 이루어졌다.

한국어 교사로서 계봉우를 소개한 연구로 근현대 한국어 교재를 고찰한 이지영(2003)과 소련 지역의 한국어 교재를 다룬 마주르 유엔(1991), 인 알렉산드르(2000)가 있으나, 이들 연구에서는 『붉은 아이: 새독본』 1~4권(1924~1927년)을 1920년대에 소련 지역에서 출간된 한국어 교재 중의 하나로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러시아 극동 지역의 초창기 한국어교육에 대한 사적 고찰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당시 집필된 교재를 한국어교육의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붉은 아이: 새독본』 1~4권(1924~1927년)은 당시 소련의 보통교육기관이었던 로력학교의 정식 교재로 사용되었기에 교재로서의 체계성을 지니고 있으며 태동기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교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외동포 한국어교육의 태동기를 대표하는 교재로서 『붉은 아이: 새독본』 1~4권(1924~1927년)에 주목하고 이 교재의 전체 및 권별 구성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자모와 기초 어휘의 제시 방식, 권별 읽기 텍스트의 소재와 구성, 한자 표기 및 시각 자료의 활용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기초적인 문자 학습에서 다양한 주제의 글 읽기로 이어지는 한국어 교재의 구성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2. 시대적 배경과 계봉우(桂奉瑀, 1880~1959)의 생애

2.1. 1920년대 소련 지역의 시대적 배경

20세기 초·중반은 소련의 소수 민족 우대 정책과 강제 이주, 제2차 세계대전과 재건과 같은 역사적 사건이 연이어 일어난 격동의 시기였다. 1860년대부터 러시아 연해주에 정착하기 시작한 한인들은 반세기가 지나기도 전인 1910년, 조국의 국권 상실을 맞이하였다.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 지 약 50년이 채 지나지 않아 조국을 잃은 망국민(亡國民)의 신분 이 된 것이다. 1917년에는 러시아의 2월 혁명으로 러시아의 황제 통치 체제가 붕괴되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볼셰비키(большевики)가 주도 하는 소비에트 정권이 수립되었다.

고려인들은 이와 같은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고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자녀 세대에게 우리말을 전승하고자 하였다. 일례로 공산당 기관지의 성격을 띤 한글 신문인 『선봉』(1923년)을 발간하였으며 조선어로 된 문학 작품을 향유하기 위해 『새날』과 같은 잡지를 발행하였다.⁵⁾

한국어로 된 신문과 잡지 발행이 합법적일 수 있었던 것은 1920년대에 소수 민족의 모어 교육을 장려하는 일명 ‘코레니자치야’(Korenizatsiya, коренизация) 정책이 활발히 추진된 것과 관련 있다. 소련 정부는 민중이 사회주의 사상을 이해하려면 사회를 구성하는 계급 구조에 대한 의식이 깨어나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중의 문맹률이 낮아져야 한다고 보았다.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면 노동자 계급인 프롤레타리아가 자본주의의 모순과 착취 구조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코레니자치야’는 표면적으로는 모어 교육을 장려하는 소수 민족 우대 정책이었으나 그 궁극적 목적은 소수 민족을 사회주의 이념으로 통합하고 이념을 체화시키는 것에 있었다. 이에 소련은 소수 민족의 언어 교육

5) 실제로 스탈린 체제가 확립된 1928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39년까지 10여 년 동안 신문수는 1,197종에서 8,769종으로 7.3배, 발행부수는 940만부에서 3,800만 부로 약 4배가 증가하였다(이준일, 1986:129).

을 장려하였다.⁶⁾

코레니자치야 정책의 시행을 계기로 한국어교육은 <표 1>의 (가) 자생기를 지나 (나) 제도화기를 맞이하게 된다.

〈표 1〉 19세기 후반~20세기 중반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계승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변천

구분	시기	주요 정책 및 사건	교육 양상	교육 자료
(가)	자생기 (1863년~1923년)	제정 러시아 통치, 초기 이주 시작	민족 정체성을 기르기 위한 문해 교육 시작	비공식적인 민간 및 종교 단체가 주도
(나)	제도화기 (1924년~1937년)	토착화 정책으로 인한 소수 민족 문화 육성 사업 활발	민족어 교육 강화, 소련 체제로의 동화를 위한 문해력 강조	공식 기관 주도로 관련 교재 발간
(다)	강제 이주 및 전쟁 시기 (1937년~1945년)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및 제2의 한인 마을 개척	교육 기반 시설 파괴, 러시아어 교육 강화, 실용적 생존을 위한 조선어 교육	교재 확보 어려움, 간소화된 교재 혹은 필사본 사용
(라)	전후 체제 개편기 (1945년~1959년)	교육 기반을 재건하기 위한 사업 진행	조선어 교육 재개 및 고등 교육 전문화	『조선문법』(1947 1948) 등 조선어 관련 문법서 집필

『붉은 아이: 새독본』 1~4권(1924~1927년)은 (나) 제도화기의 소련의 토착화 정책에 힘입어 발행된 것으로 고려인 학생의 조선어 학습을 위해 편찬되었다. 하지만 1937년 9월, 소련 정부는 ‘전쟁이 일어날 경우, 식민지 국가 출신의 소수 민족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명분으로 고려인의 강제 이주를 강행한다. 그 결과, 러시아 연해주 일대에 거주하던 한인 약 17만 명이 중앙아시아 일대로 흩어지게 되었다(홍용호, 2014:221).

6) 실제로 소련 정부의 코레니자치야는 정책적 효과를 거두었다. 실제로 1930년대 연해주 고려인의 문자해독률이 90% 이상이었다는 기록이 있다(장우권, 2012:413).

강제 이주는 계승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무너뜨린 사건이었다. 당시 한인들은 아무런 경제적 기반도 없는 곳으로 이주하였기에 황무지를 개척하기 위한 노동과 농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으며 조선어 교육은 1920년대에 비해 축소되었다. 1938년에는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민족학교 개편을 단행하면서 소련에 있는 소수 민족 학교는 일반 학교로 개편되었으며 수업에서도 주로 러시아어가 사용되었다(김필영, 2011:54~55).

(다)의 강제 이주 및 전쟁 시기에는 지식인과 원로 세대가 조선의 언어와 문화를 전수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강제 이주로 연해주 시절의 교육 및 문화 인프라가 무너지면서 조선어 교육에 대한 관심도 낮아졌다(최혜진, 2023:135). 그러나 계봉우는 중앙아시아 이주 이후에도 『조선문법』(1947·1948)과 『조선문학사』(1950) 등을 집필하며 우리말과 문학에 관한 연구를 이어 갔다.

(라) 전후 체제 개편기의 1940년대 후반기는 조선어 교육이 재개된 시기다. 1947년 우즈베키스탄 공산당 지도부가 고려인 초등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을 허가하였으며 1954년에는 한국어 교사 세미나가 열리는 등 조선어 교육을 재건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남빅토르, 2003:45).

이와 같은 격동의 시기에 발간된 『붉은 아이: 새독본』 1권~4권(1924~1927년)은 조선어 교육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코레니자치야 시대에 발간된 것으로, 1920년대 소련 지역에서 이루어진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교재라 할 수 있다.

2.2. 계봉우(桂奉瑀, 1880~1959)의 생애⁷⁾

계봉우(桂奉瑀, 1880~1959)는 1880년 8월 1일 함경도 영흥에서 태어나 10세부터 19세까지 서당에서 한학을 익혔다. 1906년부터 1910년 7월까지는 홍명학교와 함흥 영생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했다. 그는 1911년 1

7) 계봉우의 생애는 김필영이 번역한 자서전인 『꿈속의 꿈:고려인 민족운동가 계봉우 자서전』을 참조하였다.

월 계몽을 통한 조국 독립 운동에 헌신하고자 북간도로 망명하였다. 북간도에서는 독립운동가였던 이동휘와 함께 광성학교에서 국어와 국사를 가르쳤으며 1913년에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가 대한광복군 정부의 서기직을 맡았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일본과 동맹 관계에 있던 러시아는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여 권업회와 대한광복군정부를 해산하고 한인 지도자들에게 추방령을 내렸다. 이에 계몽우는 이동휘와 함께 북간도 왕청현으로 피신하였다. 그러나 1916년 이동휘를 체포하려던 일본 경찰의 급습으로 국내로 압송되었으며 인천 영종도에서 1년의 금고형을 살았다. 그는 1919년 3·1운동 이후에 블라디보스토크에 망명하였으며 한동안 공산주의 운동에 참여하였으나 1923년부터는 학교에서 교육 활동에 힘쓰면서 교재 편찬에 전념하였다. 이 시기 그는 원동 행정당국의 위임으로 독본의 형태를 띤 『붉은 아이: 새독본』 1~4권(1924~1927년)을 집필하였다. 그는 1930년 3월까지 블라디보스토크에 소재한 학교에 있다 1930년 5월부터 하바롭스크 공산당학교로 옮긴다, 1933년 봄부터 1935년까지는 학교를 스파스크 즈비야키노에 소재한 곳으로 옮겼다. 1937년 강제 이주로 카자흐스탄의 크즐오르다에 정착한 후에는 고려중학교에서 우리말을 가르쳤으며 1959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역사와 우리말 연구에 몰두했다.

『레닌기치』에 기고한 ‘고려어 교수에 관하여’(1939년 9월 10일자)라는 글을 보면 그가 계승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당시 고려학교에서 1~4학년에서만 우리말을 가르치는 것을 비판하면서 7학년부터 10학년까지 학년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고학년 수준에 맞는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지난 두 개 학년도에 주 내의 고려학교들에서는 1~4학년에서만 고려어를 교수하였다. 고려어 교수에 관한 강령과 유일한 교과서가 없는 것은 이 사업을 얼마간 어렵게 하였다. 언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목적이 글을 지을 줄 아는 데 있다면 1~4학년까지의 아동으로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가 과연 어려운 일이다. 적어도 7학년까지는 (할 수 있으면 8-10

학년까지는) 고려어를 배워야 그 목적을 비로소 도달할 것이다. 더 자세히 말하면 1-4학년까지는 그것의 관념을 얻게 하고 5-7학년까지는 그것의 전체를 대체적으로 배우게 하고, 8-10학년까지는 그것의 내용을 학리적으로 연구하게 한 후에야 그 목적을 능히 관철할 수 있는 것이다.

- 레닌기치 기고문 ‘고려어 교수에 관하여’(1939년 9월 10일자) 중⁸⁾ -

그는 4학년까지만 조선어를 배우면 한국어 문식성이 신장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한국어 문식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철자, 발음 규칙, 조어법, 통사적 규칙’을 단계적으로 교육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교원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고려어 교원의 양성 문제가 또한 나오게 되니 까살린에 있는 사범전 문학교과와 시내에 있는 1~2년제 교원 강습에 고려어를 넣으면 좋을 것이다. 이런 후에야 우리 학교들에서 고려어를 가르치는 효과가 비로소 있을 것이니, 아동 교육에 연구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의견에 다 찬동할 줄을 믿는다.

- 『레닌기치』 기고문 ‘고려어 교수에 관하여’(1939년 9월 10일자) 중 -

또한 그는 고려어 교원 회의의 참석률이 저조한 점을 비판하고 교육과정과 교수 방식의 협의를 위해 교원들이 함께 모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⁹⁾ 이처럼 그는 교재뿐 아니라 교육과정과 교원 양성 등 한국어교육의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한 한국어 교육자였다.

8) 계봉우, 「고려어 교수에 관하여」, 『레닌기치』, 1939년 9월 10일자; 『꿈속의 꿈: 고려인 민족운동가 계봉우 자서전』, 강남대학교 출판부, 2009, 12 - 13쪽에 수록된 김필영의 해제에서 재인용.

9) 크즐오르다주 인민교육부로부터 고려어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고려어 교원들은 지난 8월 23일에 일제히 당도하도록 각 구역 인민교육부에 통지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첼렌-우샤크 구역 내 학교의 교원 한 분만 왔으니, 이것이 고려어 교수에 대하여 등한시하여 상부 기관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닐까? 정한 강령과 설계안을 만들어 교수 방식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사람이 한곳에 모이는 것이 대단히 유익한 일인데, 그렇게 못된 것이 큰 유감이 아니라고 못하겠다.

- 레닌기치 기고문 ‘고려어 교수에 관하여’(1939년 9월 10일자) 중 -

3. 『붉은 아이: 새독본』의 전체 구성과 편찬 방식

본 연구는 『붉은 아이: 새독본』 제1권 제1·2편과 제2~4권을 대상으로 교육 내용과 본문 구성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제1권 제1편은 자모의 도입 순서와 음절·어휘·문장의 제시 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1권 제2편부터 제4권까지는 총 806쪽 분량의 읽기 텍스트의 제목을 엑셀로 목록화 하였으며 제목에 나타난 소재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범주화하여 권별 구성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본고에서 제시한 사례를 중심으로 ‘글의 형식, 한자 표기, 시각 자료와 연습 활동의 제시 양상’ 등을 검토하였다. 서문과 편집 지침은 편찬 방식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되, 이에 명시된 내용과 교재의 배열에서 추론한 특징을 구분하여 해석하였다. 『붉은 아이: 새독본』 1권~4권의 전체 구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2〉 『붉은 아이: 새독본』의 전체 구성

연도	책 제목	권/편	주요 특징
1924	붉은 아이: 로력학교용 고려새독본	제1권 제1편	자음과 모음을 음절과 기초 어휘, 짧은 문장을 통해 제시하고 반복 연습과 삽화를 통해 기초적인 문자를 익힐 수 있도록 함
1924	붉은 아이: 로력학교용 새독본	제1권 제2편	‘가정, 학교, 농촌’ 등 아동의 생활과 관련된 소재를 짧은 글로 제시하고 제목에 한자와 독음을 병기함
1925	붉은 아이: 로력학교용 새독본	제2권	시간 흐름 및 사건 전개가 포함된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다룬 글이 제시되며 ‘위생, 과학, 계급 문제’와 같은 추상적·이념적 소재가 다루어짐
1926	붉은 아이: 새독본	제3권	다양한 장르의 글이 소개되며 한자어가 제목뿐 아니라 본문에서도 제시됨. ‘인체·위생, 산업 기술, 인류 문명, 노동과 계급 문제’와 같은 소재를 깊이 있게 다룸
1927	붉은 아이: 새독본	제4권	사회적·이념적 소재와 과학 지식을 다루는 읽기 텍스트를 제시하며, 도표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추상적 개념과 수량 정보를 설명함

제1권 2편부터 제4권까지는 읽기 텍스트를 중심으로 구성된 독본(讀本)류 교재다. 제1권 2편에서는 아동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짧은 글이 제시되며 제2권에서는 친숙한 소재의 시와 사건의 전개를 담은 이야기가 등장한다. 제3권과 4권에서는 사회적·이념적 소재와 과학 지식을 다룬 글로 읽기의 소재가 확장된다.

이와 같은 전체 구성은 편찬 방침을 따른 것으로 제1권 제2편의 서문과 제3·4권에 수록된 편집 지침에서는 이 책의 편찬 배경이 기술되어 있다. 제1권 2편의 서문에서는 편찬 목적을 ‘아동의 경험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은 아동의 경험을 점차 넓히기 위하여 가정, 학교, 농촌에서 도시의 생활을 다루고 이어 아동에게 친숙한 해학적(滑稽的), 익살스러운 소재와 담화,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 내용을 충실하게 하였다.¹⁰⁾

- 제1권 제2편, 「緒言」, 1쪽 -

독본은 원래 아동의 정서 함양과 필수 교양 지식 습득을 위한 글을 모아 놓은 책이다(김경남, 2017). 이러한 점에서 독본은 공동체의 문화와 민족 정체성을 전달하기에 적절한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서문에 제시된 독본류 교재의 또 다른 장점은 아동의 자습과 교수자의 자율적 수업 운영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아래 서문을 보면 한자의 음과 뜻에 국문 주해를 붙여 아동의 자습을 돕고, 교수자가 각 과의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교재의 내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에 한자 61자를 넣고 그 음과 뜻을 국문으로 주해한 것은, 첫째 아동의 자습에 편의를 제공하고 둘째 사계절에 따라 연성식(聯成式)을 활용하는 교원이 여기에 배정된 각 과의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교재를 자유

10) 本書는 兒童의 實驗을 漸次廣大하기 爲하여 家庭、學校、農村 農村에서 都市로 그다음 兒童에게 가장 接近한 材料인 滑稽的 회해의, 談話、實地應用的 知識으로 써 그 內容을 充實케함. 『붉은 아이: 새독본』 제1권 제2편(1924), 「緒言」, 1쪽.

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¹¹⁾

- 제1권 제2편, 「緒言」, 1쪽 -

이를 통해 보면 1920년대 소련 지역에서도 현지 상황에 맞게 교재를 활용하는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이 고려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제3권과 제4권의 편찬 방침은 원동교육부 과학방법회의에서 제시한 편집 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극동에 있는 고려학교용 교과서를 편집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어려운 점은 고려문으로 된 서적이 매우 적고 고려의 국문과 한문에 관하여 일정한 규정이 없으며, 국어에 능하고 저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이다.¹²⁾

- 제3권, 「遠東教育部科學方法會議」, 3쪽 -

이 편집 지침에서는 한국어 교재를 편찬하기 어려운 이유로 ‘고려문으로 된 서적이 매우 적다는 점, 국문과 한문을 쓰는 데 일정한 규정이 없다는 점, 그리고 국어에 능하면서 글을 지을 능력을 갖춘 사람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를 통해 당시 교재 편찬에는 읽기 텍스트를 구성하고 표기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교재를 편찬할 인적 자원이 부족하였기에 편집 지침에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교재 발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온다. 특히 출판에 활용할 예술 관련 창작 원고가 필요하다고

11) 本書는 六十一의 漢字를 記入하고 그 漢字의 音義를 國文으로써 註解한 것은 첫째로 兒童의 自修上에 그 便利를 供하려함이며 둘째로는 四季를 딸아 聯成式을 活用하는 敎員으로 하여금 此에 配定한 各課의 順序를 不拘하고 敎材選擇의 自由가 있기로 한. 『붉은 아이: 새독본』 제1권 제2편(1924), 「緒言」, 1쪽.

12) 遠東에 在한 高麗學校用敎科書를 編輯함에 數多한 困難을 感하는 中 가장 困難되는 것은 高麗文으로 된 文字上書籍이 甚少함과 高麗의 國文及漢文에 對하여 一定한 規定이 없는 것과 또는 資格者 卽 國語에 能하고 著作의 技能이 有한 者가 不足되는 等임. 『붉은 아이: 새독본』 제3권(1926), 「遠東教育部科學方法會議」, 3쪽.

하면서 ‘아동들의 창작적 재료, 도화(圖畵), 가사(歌詞)’를 열거하였다. 이는 교재에 수록할 자료를 글뿐 아니라 그림과 노랫말 등 다양한 형태로 확보하고자 하였음을 보여준다.¹³⁾ 또한 아래와 같이 출판물의 결점을 바로잡는 데에도 공동체 구성원의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고려인 문화사업자, 공부하는 청년, 대학생, 노력 지식인들이나 지식이 있는 인민 대중들은 이 출판 사업에 대하여 모든 결점을 바로잡는데 협조할 의무가 있나니 이 사업은 다만 고려인 노동자들의 협동을 통해서야 원만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 하노라.¹⁴⁾

- 제3권, 「遠東教育部科學方法會議」, 3쪽 -

출판물의 결점을 바로잡는 일을 공동체 구성원의 의무로 제시한 것은 한국어 교재를 공동체의 공동 저작물로 바라보기 때문이었다. 고려인들의 경험과 지식을 교재에 반영함으로써 고려인 아동에게 필요한 읽기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붉은 아이: 새독본』 1~4권(1924~1937년)이 공동체의 삶과 문화를 전승하기 위한 목적에서 편찬되었음을 보여준다.

4. 『붉은 아이: 새독본』 교재의 권별 분석

4.1. 한국어 자모 습득을 위한 발음 중심의 기초 교재: 제1권 1편

4.1.1. 교육 내용

『붉은 아이: 새독본』 제1권 1편은 당시 고려인 문맹률을 낮추기 위한

13) 또한 特別히 必要한 것은 藝術에 對한 創作의 原稿이니 卽 將來 書籍出版에 採用할 兒童들의 創作의 材料、圖畵、歌詞等이라 한다. 『붉은 아이: 새독본』 제3권(1926), 「遠東教育部科學方法會議」, 4쪽.

14) 高麗人文化事業者、工夫하는 靑年、大學生、勞力智識者들이나 또는 有識한 人民의 多數群衆들은 이 出版事業에 對하여 모든 缺點을 改訂함에 幫助할 義務가 있나니 이 事業은 다만 高麗人勞力者들의 協同으로라야 圓滿한 結果를 得할 것이라 하노라. 『붉은 아이: 새독본』 제3권(1926), 「遠東教育部科學方法會議」, 3쪽.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교재로 한국어 자모가 <표 3>과 같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다.

〈표 3〉 제1권 1편의 내용 구성

쪽	목표 교육 내용	대표 어휘 및 예문
3-5	고려인의 일상을 그린 삽화	학교에 가는 모습, 널뛰기 하는 모습, 버를 베고 물고기를 잡는 모습
6	ㄱ, ㄴ, ㄷ, ㅌ, ㅍ 제시	ㄱㅌㅌㅌㅣ, ㄱ ㅌ ㄴㅌㅌ, ㄴ, 누이
7	ㄱ, ㄴ,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ㅅ, ㅌ, ㅍ, ㅍ를 활용한 1~2음절 위주의 단어 제시	무, 아이, 호미, 나무, 꿈, 감, 문, 함, 이마, 목, 무오
8	ㄱ, ㄴ,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ㅅ, ㅌ, ㅍ, ㅍ를 활용한 어휘 및 짧은 문장 제시, ㅂ, 중성 ㅇ 제시	누이 가오 누이가오?, ‘비, 나비, 거미, 봉어, 범, 입, 먹, 북’
9	ㄱ, ㄴ,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ㅅ, ㅌ, ㅍ, ㅍ의 어휘 및 짧은 문장 제시	나, 너, 밥, 국, 꿈, 밥, 흰밥, 누구 잡니까?
10	초성과 중성 환경의 ‘ㄱ’ 제시	보리, 노루, 발, 머구리, 알, 말, 기럭이, 라발, 벌, 노루발
11	경음 ㅈ, ㅊ 제시	나무뿌리, 꿀, 머구리 알, 누구누구 가오? 우리끼리 가오. 나무 꺾어라. 머리 깎아라.
12	복습	밥, 꿈, 밤, 범, 범, 먹, 눈, 입, 거미 기어가요. 누구 잡니까?
13	ㄴ, 중성 ㅇ 제시	아이가 나무 으로 올라가요. 기럭이를 놓으니 하늘로 날아 올라가 가오
14	ㅅ 제시	오리가 물로 가오 나무 뿌리를 깎아라, 소, 옥수수, 보시기, 술, 살, 손, 신, 사슬, 구슬
15	중성 ㅅ,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제시	빛, 붓, 낫, 산, 해, 사슴, 게, 외, 귀, 귀, 누에
16	ㅅ, ㅅ을 사용한 문장	개암이, 매암이, 나귀, 가마귀, 쌀, 실, 보리 씨, 붓으로 글 씨를 쓰오.
17	복습, 설 명절 담화 등장	어머니 오늘은 설이오 벌써 한 시 넘었소, 순옥아 어서 머리를 빗어라, 만금아 옷을 입어라
18	ㄷ, ㅌ, /‘ㅎ+ㄷ’ / 중성 ㄷ 제시	호도, 두부, 오디, 돌, 도끼, 툇기, 두릅이, 달, 다리, 두부, 도미, 덧신, 떡, 띄, 아들, 딸, 닭, 송닭, 암송닭

19	ㄷ, ㅌ 복습	오디 맛이 달다 소는 더디 걸는다. 낮으로 곡식을 건운다
20	ㄷ, ㅌ 제시, 받침 ㄷ, 이중모음 ㅌ	곧은 나무, 물두무, 달이 뜬다. 문을 닫으라, 오디 맛이 달다. 소는 더디 걸는다, 꿈에 떡 먹기다, ㅎ, 버루, 여호, 여호, 연
21	이중 모음 ㅌ, ㅌ	별, 약대, 벽돌, 열매, 런어, 여름, 겨울, 엇, 벼, 약국, 연을 날린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2	문장	만금이 연을 날린다, 만금이 깃버한다 바람아 바람아 불어라, 연아 연아 올라가라
23	ㅈ 제시	자, 가지, 바지, 모자, 사자, 자라, 저고리, 주머니, 도야지, 집, 절가락
24	ㅈㅈ 제시	함지, 바가지, 조리, 잣, 짐작,
25	이야기 제시	어머니 밥짓는 부엌으로 순옥이 들어 온다. 어머니 웃으면서 순옥아 일하여라.
26	수수께끼 제시	밥은 밥이라도 먹지 못하는 밥이 무엇인가?

제1권 1편은 목표 자음과 모음이 단어를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책은 첫 단원부터 목표 음운으로 /ㄱ, ㄴ/와 /ㄷ, ㅌ, ㄴ/를 제시하였다. 자음과 모음 목록을 한꺼번에 외우도록 하지 않고 목표 자음과 모음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교재의 가장 첫 장에 ‘고기’라는 단어를 제시함으로써 동일한 초성 /ㄱ/이 서로 다른 모음과 결합하는 형태를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목표 음운의 배열 순서도 조음 난이도를 고려한 음운학적 원리가 반영되어 있다. 한국어 자음을 대표하는 /ㄱ, ㄴ/을 소개한 후 입술로 조음이 가능한 양순음 /ㅁ, ㅂ/를 다루었다. 이후에는 조음 긴장도가 낮은 유음 /ㄹ/과 혀의 움직임 필요로 하는 치조음인 /ㄷ, ㅌ/, 혀끝으로 잇몸을 막았다가 순간적으로 터뜨려 소리를 내는 /ㄷ/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파찰음 /ㅈ/이 나오는데 /ㅈ/은 파열과 마찰의 두 가지 속성을 지녀 혀의 움직임과

15) 이와 같이 풀어 쓴 이유는 교재에 제시된 형태를 그대로 나타내기 위함이다. 즉, 계몽우는 자음과 모음을 분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초성과 중성, 종성의 결합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긴장 조절의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이와 같은 목표 음운의 배열 순서는 ‘조음 방법의 난이도, 조음 위치의 동일 속성, 격음화 및 구개음화와 같은 음운 변동 현상’과 같은 특성을 고려한 배열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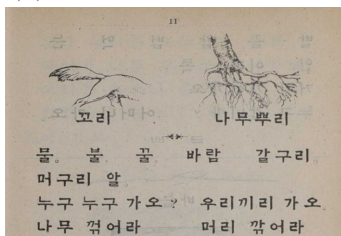
한편, 제1권 1편은 당시 고려인의 방언을 충실히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계승어 교재로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교재로 볼 수 있다. 교재는 ‘ㅁ’의 예문을 비중 있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러시아 거주 한인들이 사용하던 고려어의 음운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세 국어의 순경음 ‘ㅁ’은 이주 1세대는 [b]로, 러시아어를 모어로 배운 2세대 이후는 ‘고븐(고운), 더바(더워서), 새비(새우)’처럼 [v]로 발음되었다(한국학중앙연구원, 2023). 이러한 맥락에서 제1권 1편은 러시아어의 영향으로 음운적 변화를 겪는 고려어의 특성을 고려한 발음 중심의 입문 교재라 할 수 있다.

4.1.2. 본문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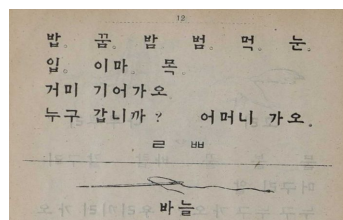
본문은 자모를 최대한 다양한 환경에서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기술되었다.

[그림 1] 제1권 1편의 본문 구성(1)

(가) 11쪽



(나) 1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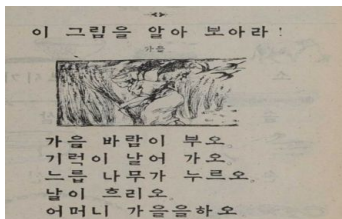
(가)를 보면 된소리 /ㄱ/를 반복해서 산출할 수 있도록 예문을 구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물’, ‘불’, ‘꿈’과 같은 1음절 어휘는 초성 자음이 대립하는 최소 대립쌍의 관계에 있다. (나)의 ‘밥, 꿈, 밤, 법, 먹, 눈, 입’은 받침이 있는 어휘로 중성에 올 때 실현되는 대표음 /ㅂ, ㅁ, ㄱ, ㄴ/

를 익히기 위한 것이다. 단원의 구분이 명시적으로 표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에서 보듯이 ‘~’을 사용함으로써 내용상의 단원을 구분하고자 한 것도 인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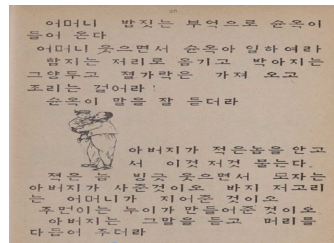
다음으로 제1권 1편에 제시된 연습 및 활동을 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2] 제1권 1편의 본문 구성(2)

ㄱ (가) 제1권 1편 24쪽



ㄴ (나) 제1권 1편 25쪽



(가)의 ‘이 그림을 알아 보아라’는 여러 단원이 끝난 후 제시되는 복습 활동이다. ‘가을 바람이 부오, 기력이 날어 가오, 느릅나무가 누르오’와 같은 문장을 발음함으로써 학습자가 다양한 환경에서 실현되는 /ㄱ/, /ㄷ/의 음운을 복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일한 /ㄷ/이라도 초성에 오는 ‘바람’은 [p], 종성에 실현되는 ‘느릅나무’는 뒤따르는 /ㄴ/의 영향으로 [m]으로 실현된다. 이를 통해 복습 활동에서는 앞서 배운 자모의 변이음을 학습자들이 접할 수 있도록 문장을 구성한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교재의 후반부에 제시된 생활문으로, 학령기 진입기의 재외동포 아동이 친숙하게 읽을 수 있는 ‘가족 생활’을 다루고 있다. 문어체인 ‘-는 다’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며 단순한 구조의 문장이 반복되어, 당시 고려인 아동이 한국어로 된 텍스트를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4.2. 한국어 문해력 신장을 위한 독본류 교재: 제1권 2편~제4권

4.2.1. 교육 내용

제1권 2편부터 제4권까지는 다양한 범주의 소재를 다룬 읽기 텍스트가 제시되었다. 총 806쪽의 읽기 텍스트의 제목을 소재 중심으로 범주화한 후 대표 텍스트의 제목을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제1권 2편~4권에 제시된 소재와 대표 텍스트의 제목

구분	소재	대표 텍스트의 제목
1권 2편	일상생활 및 공공장소	장보기, 구두방, 새 양복
	시간 및 공간 개념	年(년), 月(월), 週日(주일), 四方 東西南北(사방 동서남북)
	근대 문물 및 교통 수단	汽船(기선), 汽車(기차), 電氣(전차), 自動車(자동차)
	윤리적 덕목	두 동무, 절넘발이와 소경
2권	학교 및 공동체 윤리 실천	공동살림, 학생들의 自治(자치)
	자연과학과 위생	병남의 이상한 이야기, 깨끗한 空氣(공기)
	기초 과학 및 문명의 발전	時鐘(시계), 世계의 方向(세계의 방향), 온돌의 發明(발명)
	사회주의 계급 이론	일하고야 먹는다
3권	인체와 위생	사람의 身體(신체)는 複雜한 機械(복잡한 기계)와 같다
	산업 기술의 발전과 문명	蒸氣기관(증기기관), 活字(활자), 古今通行(고금통행)
	노동 착취 및 계급 비판	工場 製造所(공장 제조소)에서 어떻게 資本家(자본가)들의 富源(부원)을 造成(조성)하는가, 말하는것보다 더 分明한일
	인류 문명의 진화	原始時代(원시 시대)에, 家屬制(가족제)의 由來(유래), 分業(분업)
4권	사회주의 혁명의 역사	파리 쏘무나, 로씨야 勞働團體(노동단체), 레나의 학살
	제국주의 전쟁	世界戰爭(세계전쟁)은 무엇을 위하여 있었는가, 北米合衆國(북미합중국)의 產業(산업)
	계급 착취의 현실과 구조	工場 製造所에서(공장 제조소에서), 어린 勞働者들(어린 노동자들), 吡奧네르는 누구인가 (吡奧네르는 누구인가), 準備하라(준비하라)

위의 표를 보면, 제1권 2편에서는 일상적 소재와 근대 문물, 협동 의식과 같은 내용이, 제2권에서는 공동체 생활과 사회주의 계급 이론이 다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제1권 2편의 내용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통적인 생활 공간인 가정과 농촌에서 근대적 제도의 산물인 학교나 도시로의 이행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 개념도 ‘四方(동서남북), 年(해), 月(달), 週日(주일)’처럼 기본적인 시공간 개념에서 ‘장보기, 구두방’과 같은 일상생활 소재로 확장된다. ‘두 동무 이야기’와 같은 텍스트를 통하여 협력의 가치를 강조하기도 하는데, 이는 이후 권에서 제시되는 사회주의 사상과도 관련 있다.

제2권은 일상적 소재에서 사회적 소재로 텍스트 주제가 확장되는 과도기적 성격을 보인다. ‘공동살림, 학생들의 自治(자치)’와 같은 텍스트를 다룸으로써 조직 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였다. 교재 중반부에는 위생 개념이나 과학 지식과 같은 전문적 영역의 소재가 소개되었다. 마지막 부분에는 초기 계급 의식을 다룬 ‘일하고야 먹는다’와 같은 텍스트가 제시되었다. 일하지 않고 노동자나 농민을 착취하는 자를 ‘불수아(부르주아)’라고 한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레닌을 부르주아가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으로 기술하였다.

제3권과 4권에 이르러서는 ‘혁명사, 사회주의 경제 이론, 고급 과학 기술’과 같은 정치적·학문적 소재가 등장한다. 제3권부터는 ‘蒸氣기관(증기기관), 活字(활자)’와 같이 산업 기술 및 문명 발달과 관련된 소재가 다루어진다. 이는 기술 발달로 노동 계급의 착취 구조가 심화되었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한 것으로, 제3권 후반부에는 ‘工場 製造所(공장 제조소)에서 어떻게 資本家(자본가)들의 富源(부원)을 造成(조성)하는가’와 같이, 노동 착취를 하는 부르주아에 대한 비판 의식을 고조시키는 텍스트가 제시된다. ‘말하는 것보다 더 分명한 일’과 같은 텍스트에서는 돌가루를 들이마서 폐병으로 죽어가는 한 노동자의 이야기가 제시되었다.

제4권은 사회주의 사상이 전 세계의 패권 다툼과 연관이 있다는 인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 소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까를막쓰(마르크스)와 엥겔쓰, 파리쑤무나, 레나의 학살, 붉은군대, 국제당, 공산

청년'과 같은 제목이 그 예이다. '사회주의 혁명의 역사', '제국주의 전쟁'과 같은 텍스트에서는 국가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이 연대할 필요가 있다는 이념적 사상이 드러난다. '地球(지구), 太陽(태양), 行星(행성), 日蝕(일식)·月蝕(월식), 우주의 구성'과 같은 과학적 사실을 소개하는 텍스트도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제4권은 사회주의 이념과 근대기의 과학 지식을 설명하는 고급 수준의 독본이었음을 알 수 있다.

4.2.2. 본문 구성

제1권 2편의 본문은 단순한 구조의 문장이 주를 이루는 단락 중심의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다. 재외동포 아동을 위한 초급 한국어 읽기 교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간결한 형태의 읽기 텍스트가 1920년대에 등장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아래 (가)의 텍스트에서는 겨울 전통 놀이인 '팽이 놀이'를 주어 서술어 형태의 단순한 문장과 대등 접속문, 일상적 구어체 표현을 사용하여 짧게 기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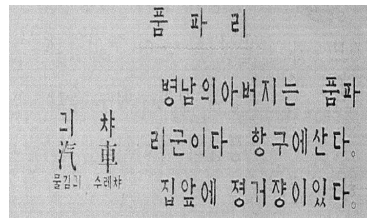
[그림 3] 제1권 2편의 본문 구성

ㄱ (가) 1권 2편 74쪽

팽이 돌리기

뜰에 눈이 덮이고 강에는 얼음이 얼었다.
어름 우에서 노는 아이들은 춥은 줄도 모른다.
어떤 아이들은 팽이를 돌군다.
불 팽이는 팽글팽글 잘도 돈다.

ㄴ (나) 1권 2편 7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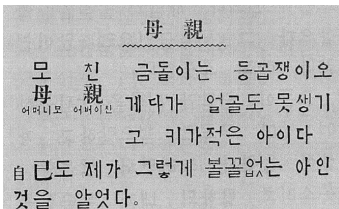
(나)에서는 본문 옆에 '汽車'와 같은 한자어를 따로 제시하고, 그 위에 독음을, 아래에 각 한자의 뜻과 음을 병기하였다. 학생들이 제목을 읽음으로써 자연스럽게 기초 한자어를 익힐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음으로 제2권의 본문을 살펴보면, 다소 복잡한 구조의 문장으로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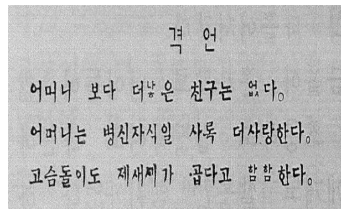
성되어 있으며, 제1권 2편에 비해 텍스트의 장르도 다양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제2권의 본문 구성

ㄱ (가) 2권 6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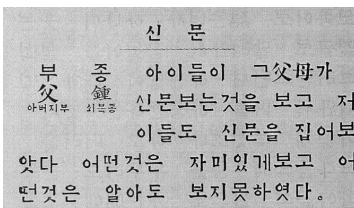
ㄴ (나) 2권 7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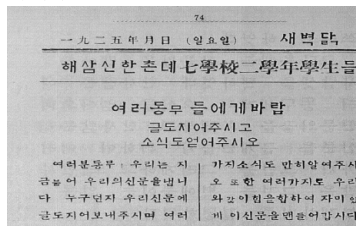
(가)는 ‘도입-전개-위기-결말’의 구조를 지닌 이야기로 5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건 전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단락 간 높은 응집성을 보인다. (나)는 (가)를 모두 제시한 후 연이어 나오는 것으로 ‘격언’의 형태를 보여준다. 아래의 [그림 5]도 제2권 본문 구성의 특징인 액자 기법과 본문 구성의 장르적 다양성을 보여준다.

[그림 5] 제2권의 본문 구성

ㄷ (다) 2권 70쪽



ㄹ (라) 2권 74쪽



(다) ‘신문’은 아동들이 힘을 합해 직접 신문을 발행하는 내용을 다룬다. ‘그 이틀 만에 신문이 벌써 되었다. 아이들이 모여 읽는다.’라는 본문 기술 후, 실제 신문 형태인 (라)가 액자 형태로 제시되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새벽닭

1925년 ○월 ○일(일요일)

해삼 신한촌 제7학교 2학년 학생들

여러 동무들에게 바라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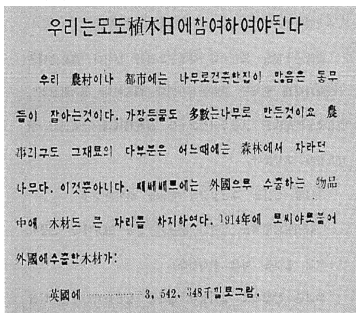
글도 지어 주시고 소식도 알려 주십시오.

동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문을 냅니다. 누구든지 우리 신문에 글을 지어 보내 주시고 여러 가지 소식도 많이 알려 주십시오. 또한 여러 가지로 우리와 함께 힘을 합하여 이 신문을 재미있게 만들어 갑시다.

이와 같은 구성은 텍스트 안에 또 다른 장르의 텍스트를 포함하는 액자 형식의 기술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신문의 이름 짓기’, ‘기사의 제목 정하기’와 같은 신문 제작 과정을 이야기 속에 제시함으로써 읽기와 쓰기 활동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제3권의 본문은 제목뿐 아니라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어휘가 [그림 6]의 (가)와 같이 한자로 표기되었다.

[그림 6] 제3권과 4권의 본문 구성

┐ (가) 3권 149쪽



┐ (나) 4권 16쪽



제4권에서는 (나)에서 보듯 본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그래프 형태의 시각 자료가 등장한다. 동전 그림은 세계 대전쟁의 손실액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전쟁 전의 부와 전쟁으로 인한 손실을 대비하여 추상적인 수량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세계 전쟁의 손실액을 은화

달러로 계산한 후 그것을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의 몫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이는 자본주의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난이도 높은 내용이다. 이와 같이 전문적이고 학문적인 소재가 많은 4권에서는 어려운 본문 내용을 쉽게 전달하고자 오늘날의 인포그래픽과 유사한 시각 자료가 많이 활용되었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붉은 아이: 새독본』은 아동이 한국어를 익히면서 사회적 지식과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한 교재임을 알 수 있다. ‘가족생활과 놀이, 학교와 공동체, 노동과 계급, 과학 지식’을 다룬 이 교재는 계승어 교재가 공동체의 삶과 문화를 전승하는 매개체이자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5. 결론

이 연구에서는 1920년대 소련에 거주하는 고려인을 대상으로 집필된 『붉은 아이: 새독본』 1~4권(1924~1927년)의 권별 및 본문 구성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제1권 1편(1924)은 음운 중심의 교재라는 점에서 제외동포를 위한 기초 문해 교육 자료라는 의미를 지닌다. 음운 해독은 기초 문식성 신장에서 중요한데 이는 자음과 모음을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단어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을 때 학습자의 단어 인식 능력이 본격적으로 계발되기 때문이다(Share, 1995:155). 이를 고려할 때 자모를 음운 중심으로 다룬 것은 1920년대 교재로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붉은 아이: 새독본』은 학습자의 문식성을 고려해 소재를 난이도 별로 배열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1권 2편부터 본격화되는 읽기 텍스트는 일상적·경험적 내용에서 사회적·이념적 내용으로 심화된다. 특히 제4권에서는 자본주의 세계의 불평등을 깨닫게 하고 프롤레타리아로서의 변화를 촉구하는 방식의 텍스트가 출현하였다. 이를 고려하였을 때 『붉은 아이: 새독본』 1~4권(1924~1927년)은 발음 중심의 음운 단계에서 고급 수준의 문식성에 이르기까지 숙달도에 따라 주제를 위계

적으로 설계한 독본류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재 전체 구성의 특성을 살피는 데 초점을 두고, 각 권별로 내용 및 본문 구성의 특징적 양상을 살펴보았다. 향후에는 이 교재에 나타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계봉우의 호는 ‘북우(北愚)’로, 그는 스스로를 가리켜 ‘북쪽에 있는 바보’라고 칭했다. 계봉우는 자신의 성명을 받음 그대로 ‘계봉우’로 표기할 정도로 한국어 음운 지식이 뛰어난 어문학자였으며, 동시에 1920년대부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활동했던 한국어 교사였다. 우리말과 민족 정체성을 후대에 전하고자 한 그의 족적(足跡)이 한국어교육학계에서도 활발히 조명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학술지 논문>

- 곽충구, 「국어사 자료의 해독과 지역 방언: 『조선관역어』의 난해어를 중심으로」, 626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2023.
- 김경남, 「근현대 소년(어린이, 아동) 독본의 국어교육사적 의의」, 『독서연구』 42, 한국독서학회, 2017, 61-86쪽.
- 김보희, 「해외 한민족 디아스포라 예술집단에 관한 연구: 독립국가연합 고려인을 중심으로」, 『한국문학과 예술』 (4), 한국문학과 예술연구소, 2009, 141-165쪽.
- 김필영,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과 계봉우」, 『한국학연구』 25, 인하대 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49-90쪽.
- 남빅토르, 「우즈베키스탄 한민족의 정체성과 한국어 교육: 타슈켄트 국립 니자미 사범대 한국어문학과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2003, 41-53쪽.
- 마주르 유엔, 「러시아와 소련에서의 한국어학과 한국어교육」, 『이중언어학』 8, 이중언어학회, 1991, 26-41쪽.
- 박준형, 「해방 직후 간도에서 발행된 『우리國史』의 체제와 한국사 인식—桂奉瑠의 『最新東國史』에서 『우리國史』로」, 『역사교육』 159, 역사교육연구회, 2021, 241-280쪽.
- 반병률, 「러시아혁명 전후 시기 계봉우(桂奉瑠)의 항일민족운동, 1919~1922: 기독교 민족주의자에서 사회주의자로」, 『한국학연구』 25,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7-48쪽.
- 윤금선, 「近代 러시아 文盲退治 運動과 移住 韓人의 國語教育 研究<先鋒> 報道 記事를 中心으로」, 『어문연구』 44(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6, 387-417쪽.
- 윤병석, 「李東輝와 桂奉瑠의 民族運動」, 『한국학연구』 6·7,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6, 279-321쪽.
- _____, 「계봉우의 민족운동과 한국학」, 『한국학연구』 22,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419-440쪽.
- 이영호, 「계봉우의 한국역사 인식과 역사관」, 『한국학연구』 25,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91-124쪽.
- 이지영, 「근현대 한국어 교재의 단원구성 변천」, 『국어교육연구』 11, 서울대학교

- 국어교육연구소, 2003, 369 - 410쪽.
- 이현주, 「계봉우의 사회주의사상과 역사서술 체계: 독립운동사 서술체계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25,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125-159쪽.
- 인 알렉산드르, 「러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재 현황과 개발 방향」, 『국어교육연구』 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0, 189 - 193쪽.
- 임경화, 「계봉우의 조선 시가 연구 고찰 -소련 시대 민족문화 창출 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29,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3, 271-305쪽.
- 임학성, 「北愚 桂奉瑬(1880~1959)의 역사민속 서술과 인식」, 『역사민속학』 48, 한국역사민속학회, 2015, 34-61쪽.
- 장우권, 「코리안 디아스포라 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4), 2012, 403 - 425쪽.
- 조규익, 「桂奉瑬 『조선문학사』의 의미와 가치」, 『국어국문학』 155, 국어국문학회, 2010, 159-192쪽.
- 조동걸, 「북우 계봉우의 생애 및 연보와 저술」, 『한국학논총』 19,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6, 127-177쪽.
- 조원형, 「언어학자 ‘계봉우’: 민족어 연구와 마르크스주의 사이에서」, 『러시아의 한국학과 북우 계봉우』, 소명출판, 2013, 95-137쪽.
- 최혜진, 「고려인 신문 『레닌기치』의 ‘조선어’ 관련 기사 연구」, 『슬라브研究』 39(3), 한국의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23, 123-153쪽.
- 홍용호, 「강제이주 직후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의 스파하노프운동」, 『한국사학보』 54, 한국사학회, 2014, 221-253쪽.
- Share, D. L. (1995), Phonological recoding and self-teaching: Sine qua non of reading acquisition, *Cognition* 55(2), 151 - 218.

<단행본 및 저서>

- 김민승, 『재한 고려인 대상 한국어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요구분석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 김정숙 외, 『한국어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 동향과 발전 방향』, 하우, 2025.
- 계봉우, 『붉은 아이: 새독본』 제1권 제1편~제4권, 연해도(원동)교육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정보, 1924 - 1927.
- _____, 『꿈속의 꿈 : 고려인 민족운동가 계봉우 자서전』, 김필영(역), 강남대학교 출판부, 2009.
- 이준일, 『소련의 政治制度와 言論: 소비에트연방의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서울: 중앙대학교 언론연구소, 1986.

<웹사이트 및 기타 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려말(高麗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지신허」,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현황 2023」, <https://www.oka.go.kr>.

DiverseAsia, 「1937년, 애도받지 못한 비극 — 고려인 강제이주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2018, <https://diverseasia.snu.ac.kr/?p=108>

Abstract

The Red Child: New Reader as an Early Korean Heritage Language Textbook in the 1920s Soviet Union: A Study of Volumes 1-4

Han, HaLim
(Hanbat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educational content and textual organization of *The Red Child: New Reader*, Volume 1, Parts 1 and 2, and Volumes 2 - 4, published between 1924 and 1927. Volume 1, Part 1 presents Hangeul letters, syllables, basic vocabulary, and short sentences. The subsequent volumes contain reading materials on everyday life as well as social and ideological topics. The selected examples also show the use of Hanja, vocabulary explanations, illustrations, and diagrams. Produced within the context of Soviet policies concerning minority languages and education, the series combines elementary literacy instruction with the transmission of knowledge and socialist values. Examined from a heritage language education perspective, it provides evidence of early Korean reading materials for children in the Soviet Far East. The analysis describes the organization of the series; it does not establish learners' proficiency levels or the textbooks' instructional effectiveness.

Keywords: Gye Bong-woo,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Overseas Koreans,
Heritage Language Education, Dokbon-style Textbook, Korean
Language Textbook

한하림

소 속: 국립한밭대학교

전자우편: didibaj153@hanbat.ac.kr

논문투고일 2026. 8. 17. / 심사완료일 2026. 9. 13. / 게재결정일 2026. 9. 15.